

# 송사소설계 추리소설과 정탐소설계 추리소설 비교 연구\*

이정옥\*\*

1. 서론
2. 범죄적 일상성과 범죄의 공론화 수용양상
3. 근대적 ‘정탐’의 도입과 개명사회에 대한 인식
4. 도서법(倒敘法)의 도입과 서사적 긴장의 정도
5. 결론

## 국문요약

본 논문은 이해조의 『쌍옥적』을 한국 추리소설의 효시로 보고, 개화기의 추리소설을 서구에서 일방적으로 이식된 결과물로 여기는 단일한 시각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나아가 개화기 추리소설은 조선조의 송사소설에 뿌리를 두고 있는 송사소설계 추리소설과 서구 추리소설의 영향을 받은 정탐소설계 추리소설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주목하여, 개화기 추리소설이 출현하게 된 사회적 의미명과 관련시켜 그 서사적 특질과 존재 양상을 비교·분석하였다.

정탐소설계 추리소설은 타인의 재산권이나 생명권을 노린 근대적 범죄 유형을 주로 다루고 있는 반면, 송사소설계 추리소설은 가정이나 향곡 등 공동체 내에서의 갈등과 원한에 의한 패륜적인 범죄사건을 그리고 있다. 또한 개화기 추리소설에서는 서구의 추리소설과 달리 직업적인 탐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탐소설계 추리소설에서 탐정은 경찰, 어사, 군수 등 공적 영역에 속하는 인물인 반면, 송사소설계 추리소설에서는 등장인물 중의 한 사람이 일시적으로 탐정의 역할을 대신하여 범죄사건을 해결한다. 또한 정탐소설계 추리소설과 송사소설계 추리소설의 두 유형 모두 인과관계의 도치, 즉 도서법(倒敘法)을 활용하여 독자들의 호기심을 촉발하는 서사 전략을 취하고 있다. 탐색의 서사가

\* 이는 한국학술진흥재단 신진연구(KRF-2006-332-A00192) 지원에 의해 작성된 논문임.

\*\* 숙명여자대학교 의사소통센터 조교수

우세한 정탐소설계 추리소설은 탐정이 조각난 정보를 찾아 마치 퍼즐을 맞추어가듯이 가추법을 동원하여 범죄사건의 동기와 원인을 밝혀내는 정탐과정을 보여준다. 따라서 독자들로 하여금 범죄사건의 전말을 파헤치는 탐정의 탐색활동에 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서사를 끝까지 읽도록 유도한다. 반면, 범죄소설적 요소가 강한 송사소설계 추리소설에서는 범죄사건의 인과관계가 부분적으로 도치되는 서사구조를 취한다. 이에 따라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정보의 성격은 작품마다 다르게 나타나며 상대적으로 서사적 긴장감도 떨어진다. (주제어: 추리소설, 정탐소설계 추리소설, 송사소설계 추리소설, 송사소설, 정탐, 탐정, 탐색의 서사, 범죄의 서사, 도서법, 가추법, 서사적 긴장)

## 1. 서론

한국 추리소설의 효시로 단연 이해조의 『쌍옥적』이 손꼽히고 있다. 이는 작가 이해조가 1908년 12월 4일부터 제국신문에 『쌍옥적』을 연재할 때는 물론 1911년에 단행본으로 간행할 당시 한국 문학사상 최초로 ‘정탐소설(偵探小説)’이라는 표제를 달았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작가 스스로 ‘정탐소설’이란 장르명을 표방했던만큼 『쌍옥적』은 서구의 추리소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추리소설이 갖추어야 할 구성 요소를 충분히 담보하고 있다. 더욱이 이해조가 신소설을 민중 계몽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소설의 대중화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실험을 피하였던 점, 또 일본어에 능통하여 일찍이 일본을 매개로 서구의 소설을 다양하게 접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서구의 과학소설을 번안한 『철세계』(1908)와 추리소설을 번역한 『누구의 죄』(1913)를 출간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이러한 주장이 정설로 굳어지고 있는 실정이다.<sup>1)</sup>

본고는 이와 같이 한국 추리소설의 효시를 이해조의 『쌍옥적』으로 잡고, 추리소설이 서구에서 일방적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는 단일한 시각에 대한 의

1) 이러한 논의로 최원식의 「이해조 문학연구」(『한국근대소설사론』, 창작과비평사, 1986), 임성래의 개화기 추리소설 『쌍옥적』 연구(『추리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1997), 이동원의 한국 추리소설의 기원 <정탐소설 쌍옥적>의 근대성에 대한 고찰(『현대문학의 연구』 제 22집, 2004. 2) 등이 있다.

문에서 출발한다. 즉 개화기<sup>2)</sup> 추리소설의 출현은 결코 서구의 근대적 형식을 일방적으로 이식한 결과물이 아니라 개화기의 복잡다단한 상황 속에서 형성된 독특한 문학 현상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개화기의 추리소설이 출현하게 된 사회적 의미망과 관련시켜 그 서사적 특질과 존재 양상을 살펴보고 나아가 그것이 고소설과 접목되는 접합 지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 개화, 계몽, 민족 등의 선형적 기준에 의한 가치 평가를 지양하고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 기원을 밝히는 연구와 궤를 같이 한다. 이러한 논의들은 근대화의 조건이 결여된 문학적 풍토에서 수입 근대화에 의해 서구의 근대적 형식이 일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보는 단절론<sup>3)</sup>을 넘어서서, 개화기 신소설이 지닌 미적 특질을 당대의 사회 현상과 관련지어 분석하는 논의로 발전하고 있다.<sup>4)</sup>

이와 달리 개화기 추리소설 연구에서는 여전히 서구적 근대문학의 이식론이란 틀 안에서 『쌍옥적』의 이질적인 특성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개화기의 ‘정탐소설’을 1930년대 한국 추리소설 형성기의 전사(前史)적 형태로 보는 관점으로 일관하고 있다. 개화기 추리소설 연구에서 지금까지 견지해온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리소설<sup>5)</sup>의 개념을 현재 통용되고 있는 탐정소설(detective novel을 지칭)이나 혐의의 추리소설(mystery novel에 해당)로 한정하는 관점을 지양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추리소설을 살인

2) 1894년부터 1910년대에 이르는 시기를 ‘개화기’, ‘근대 계몽기’, ‘애국계몽기’ 등 다양하게 불리거나 더 세분화하여 시대를 구분하고 있지만, 송사소설과 정탐소설의 접합 지점을 살펴보는 본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화기’로 칭하고자 한다.

3) 인화의 개설 신문학사(『조선일보』, 1939. 9. 15-16)가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4) 대표적인 예로 김영민의 『한국 근대소설사』(술, 1996), 정성태의 『개화기 신문 소설의 서사수용양상』(소명출판, 1999), 권보드래의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소명출판, 2000) 등을 들 수 있다.

5) 추리소설의 개념은 국가에 따라 다양하여, 영국에서는 ‘detective novel’, 프랑스에서는 ‘roman policier’, 미국에서는 ‘mystery novel’ 등의 명칭으로 불린다. 또한 논자에 따라 다양한 개념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하는 연구는 일천한 편이다.

과 같이 법적으로 비난받을만한 중대한 범죄를 추리 기법으로 다루는 서사물 (tale of ratiocination)의 총칭<sup>6)</sup>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중대한 범죄를 추리 기법으로 다루는 서사물의 총칭으로서의 추리소설은 범죄가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맥락과 시대적 변화와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므로 그 폭이 상당히 넓어서 탐정소설, 범죄소설,<sup>7)</sup> 하드보일드 등 다양한 하위 장르로 분화되어 있다. 이런 점에 입각하여 지금까지 통용되어온 추리소설의 협소한 개념 규정에서 벗어나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하면, 개화기 추리소설의 범주를 서구에서 일방적으로 수입된 ‘정탐소설’에만 한정하는 경직된 틀을 타파할 수 있다. 나아가 고소설과 신소설이 복잡하게 충돌하고 접합되는 지점에 다양하게 분포되었던 개화기 추리소설의 존재 지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견지에서 보면 개화기의 추리소설은 크게 조선조의 송사소설에 뿌리가 닿아 있는 송사소설계 추리소설(이하 송사소설계라 칭함)과 그 이전까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정탐소설계 추리소설(이하 정탐소설계라 칭함)로 구분할 수 있다. 송사소설은 송사사건의 시말(始末)이 작품의 구조적 원리가 되는 소설, 즉 송사모티프를 이야기의 중심축으로 하는 일련의 고소설<sup>8)</sup>이다. 송사소설은 서구의 법정소설과 유사하다. 법정소설은 추리소설의 전사(前史)적 형식에 해당하며, 주로 범인의 색출과 수사에 중점을 두었다.<sup>9)</sup> 이에 비해 송사소설계는 조선조 송사소설의 특성을 개화기의 사회적 상황에 맞게 새롭게 개작하면서 추리 기법이나 추리적 서사구조를 가미한 일련의 개작 신소설과 송사모티프를 활용하되 추리 기법과 추리적 서사구조를 강화한 개화기의 창작 신소설을 말한다. 반면 정탐소설은 서구 추리소설의 영향을 받은 소설로, 범죄사건의 전개과정이 아니라 수수께끼와 같은 범죄사건을 해결

6) 이브 피테르, 『추리소설』, 김경역 역, 문학과지성사, 2000. 17-24쪽

7) 범죄소설에 대한 개념 규정은 논자마다 다르나, 본고에서는 이브 피테르『추리소설』, 김경역 역, 문학과지성사, 2000. 17쪽)에 따라 추리소설의 하위 범주로 본다.

8) 이현홍, 『한국 송사소설 연구』, 삼지원, 1997. 28쪽

9) 이브 피테르, 『추리소설』, 김경역 역, 문학과지성사, 2000. 26-27쪽

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어 ‘누가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고 누가 그것을 밝혀내는가’하는 탐색의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정탐소설계는 송사소설계에 비해 범죄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추리 기법이 훨씬 강화되고 범죄를 해결하는 탐정의 역할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이는 서구 추리소설의 영향권 내에 있는 메이지시대의 일본이나 청말 중국의 ‘정탐소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sup>10)</sup>

필자는 개화기 추리소설의 존재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일단 신소설 중에서 범죄를 다룬 작품들을 대상으로 위에서 언급한 송사소설계와 정탐소설계의 개념 정의에 부합하는 작품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다.<sup>11)</sup> 그 결과 이 두 가지 계열이 추리 기법이나 서사구조 등 추리소설의 구성 요소의 측면이나 근대 구성 방식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단절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접합되거나 삼투되어 있는 일종의 ‘대화적 양상’을 띠는 점을 발견하였다. 즉 이 두 가지 계열의 특성은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지만 실제로 존재했던 작품의 지형은 송사소설계에서 정탐소설계로 순차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탐소설계가 출현한 이후에도 여전히 송사소설계가 존재하는 등 병행과 분란의 모습을 띠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송사소설계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이해조의 『구의산(九疑山)』(1912)을 꼽을 수 있으며, 김교제의 『현미경(顯微鏡)』(1912)은 송사소설계에 속하되 송사소설의 특성이 삼투되어 있는 작품에 속한다. 또한 정탐소설계에 속하는 대표적인 작품은 이해조의 『쌍옥적(雙玉笛)』(1909)이며, 백익춘사의 『마굴(魔窟)』(1907)이나 현공림의 『고의성(鼓의聲)』(1912)은 정탐소설계의 특성을 지니면서도 동시에 송사소설의 특성을 공유하는 작품에 해당한다.

10) 이에 대한 연구로 九鬼紫郎의 『探偵小説百科』(金園社, 1979)과 김효진의 근대 중국 탐정소설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등이 있으나, 본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고자 한다.

11) 『신단공안』이 개화기 추리소설에 미친 영향에 대해 주목하는 논의가 있지만, 본고에서는 『신단공안』이 변안소설이라는 점에서 논외로 하였다. 『신단공안』을 비롯하여 개화기에 존재하였던 변안 추리소설에 대해서는 다음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이러한 각 작품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2장에서는 당대 사회에 나타난 범죄적 일상성과 범죄의 공론화 과정의 수용 양상을 비교할 것이며, 3장에서는 경찰제도와 정탐기술 등 근대를 인식하고 구성하는 방식의 비교를 통하여 개화기 추리소설에 나타난 ‘정탐’의 의미와 관련된 근대성을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4장에서는 추리적 서사구조에 따른 서사적 긴장감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한국 추리소설의 기원을 서구 추리소설의 수입과 모방으로 보아온 이식론적 시각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송사소설에서부터 견지해온 전통적인 추리 형식이 서구에서 유입된 새로운 추리 형식과 교섭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개화기의 사회문화적 토양에서 한국적 추리소설의 형태로 발현되는 문학적 현상이 밝혀질 것이다.

## 2. 범죄적 일상성과 범죄의 공론화 수용양상

추리소설은 다른 장르의 소설과 달리 유독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수수계끼와 같은 범죄의 서사와 범죄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탐색의 서사 사이에 밀고 당기는 게임으로 이루어진 추리소설의 세계에서 범죄는 서사의 중핵에 해당한다. 이때 범죄의 동기는 지극히 일상적인 영역이고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건들로 구성된다.

이처럼 추리소설에서 일상적인 범죄를 다루는 이유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범죄소설의 역사를 문학사가 아니라 사회사로 접근해야 한다”는 만델의 조언<sup>12)</sup>에 따라 추리소설 발생의 근거지였던 당대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구 추리소설의 발생지였던 19세기 서구사회는 산업화의 여파

12) 에르네스트 만델 『범죄소설의 사회사』, 이동연 역, 이후, 2001. 11쪽 (에르네스트 만델은 범죄소설을 추리소설의 상위 범주로 보고 있다.)

로 상업과 교통이 발달하면서 대도시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인구의 집중과 익명성, 빈부의 격차와 소외감이 교차하는 대도시의 근대적 공간은 범죄 스캔들이 동반되는 불안과 혼돈의 장소였다. 범죄 스캔들이 각종 신문 기사나 대중지를 통해 독자들에게 상세하게 알려짐에 따라, 자연 범죄에 관심을 갖는 독자층이 형성되었다. 범죄 스캔들에 대한 독자들의 흥미가 점차 높아지자 신문이나 대중지를 매개로 한 보도와 기록을 넘어서 범죄를 소재로 삼은 각종 독서물과 대중지가 쏟아졌고, 이러한 사회상황에서 추리소설이 하나의 문학적 장르로 형성되었다.<sup>13)</sup>

이와 마찬가지로 개화기 추리소설의 발생 근원 역시 조선조 말기와 개화기의 사회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선조 말기는 세도정치와 국정의 문란으로 인해 봉건적 이데올로기가 붕괴되고 신분제도와 사회질서가 급격하게 혼란해진 상황이었다. 지배층의 부당한 처사와 신분적 차별과 억압 등의 사회구조적 모순이 심화되자 이에 반발한 백성들의 적극적인 권리 쟁취가 범죄의 형태로 발현되었다. 민생치안이 의정부의 통제를 받은 포도청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지만, 인력에 비해 취급 업무가 경제생활범죄와 사회사범의 단속, 반정부세력 체포와 구금, 지방의 중죄인 압송 등 지나치게 광범위하였기에 치안상태가 매우 악화된 상황이었다.<sup>14)</sup> 이처럼 조선조 말기는 각종 범죄와 관련된 재판사건이 만연해진 사회 환경으로 말미암아 한국 범죄문학의 원류에 해당하는 송사소설의 소설적 여건이 조성되었다. 또한 동학혁명 전후에는 봉건정부의 방조와 묵인 아래 대민 수탈 행위와 포졸들의 악행이 난무하여 민(民)으로부터 강한 저항을 불러일으켰다.<sup>15)</sup> 개화기 추리소설에 등장하는 범죄사건이 주로 갑오개혁 전후의 치안 부재상황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점도 당대의

13) 이브 피에르, 『추리소설』, 김경역 역, 문학과지성사, 2000. 22쪽.

에르네스트 만델, 『범죄소설의 사회사』, 이동연 역, 이후, 2001. 20-22쪽

14) 이현홍, 『한국 송사소설 연구』, 삼지원, 1997. 36-40쪽

15) 박은숙, 개항기(1876-1894) 포도청의 운영과 한성부민의 동태, 『서울학 연구』 제5집, 1995. 6. 146-147쪽

혼란한 사회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 지금 대한이 성한 나라라고 흡수는 업는것이 빅성의 정세가 말이 못 되고 국중에 유의 유식하는 사람이 십분에 구요 도적과 협잡비가 한량이 업시 잇스며 법률과 규칙이 서지를 아니 해야 조령를 빅성이 시형 아니하는 것이 만히 잇스며 민정을 몰으는데 하는 관인들이 만히 잇스며<sup>16)</sup>

(1)의 기사는 개화기 추리소설이 쓰여진 시점보다 10여 년 전에 이미 범죄가 일상화되었던 사회적 정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거리에는 도적과 협잡배가 난무하고 인구의 구집 퍼센트가 노숙자일 정도로 당대의 경제 상황이 극도로 어려웠으며, 또한 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거의 없으며 관인들조차 민정을 외면함으로써 사회 질서가 매우 문란한 치안부재의 상태였다. 이렇게 범죄가 폭주했던 당대의 사회상황이 『독립신문』, 『제국신문』, 『매일신보』 등의 신문을 통해 연일 보도됨에 따라, 신문을 매개로 더욱더 범죄의 공론화와 일상화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독립신문』에 실린 살인미수사건에 관한 (2)의 기사를 예로 들어보자.

(2) 이달 스무 엿식 날 양천 니근용이가 남대문 거리에서 나무 장스 으히 임만준의 나무를 흥정하야 공덕이로 쓰우고 가서 부리고 그으히 보고 말하기를 양화도 짐 실을 것 잇다고 다리고 가서 희가 저물뻐 니가가 칼노 으히 임가의 목을 두 번 질고 몽둥이로 썩리니 -중략- 더히 삼촌이 경무청에 고하니 본청에서 스무 날헤 날 밤 열시에 순검 세슬 보내여 그도적을 잡아다 가두윳다더라<sup>17)</sup>

기사에는 폭력적이고 잔인한 범죄사건의 전개과정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어서 이를 읽는 당대의 독자들에게 전례 없는 정서적 충격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더구나 범죄 발생 현장이 양천, 남대문, 공덕, 양화 등으로 독자들이 거주

16) 「대한 인민의 직무」, 『독립신문』, 1898. 3. 3

17) 『독립신문』, 잡보란, 1896. 5. 2



하는 일상적 공간과 멀지 않은 근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폭력적인 범죄의 구체성을 확연하게 실감하게 된다. 신문이라는 강력한 매체를 통해 범죄를 일상적으로 접하였던 당대의 독자들에게 범죄는 특별한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일상의 공간에서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돌출될 수 있는 폭력적 행위로 인식하게 만든다. 이처럼 범죄사건이 신문 기사를 통해 공적으로 담론화되는 과정에서 개화기의 신문이나 대중지 등의 공공 매체는 범죄적 일상성에 침윤된 추리소설의 세계가 열리는 진입로 역할을 담당하였다. 동시에 개화기 추리소설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범죄의 장면들은 당대의 신문을 통해 보도된 범죄 기사를 재현함으로써 범죄의 스캔들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3) 이썩는 허가 열흔점 가량이나 되었는데 문밖계 어니 중 허나이 와서 목탁을 탁々치며 천수를 오이며 동냥을 빌거널 -중략 이기씨가 엇지홀출 몰나 이계 웬일이야 하며 방으로 피하여 드러가니 그 중놈이 허는말이 우엔일은 무에 웬일이야요 -중략 다락으로 피신을허니 저 흥한헌 중놈이 쫓츠 올나가 음탕헌 행동을 하려흔즉 이기씨 듯지안코 무한이 할난을 허다가 인하여 듯지를 안는지라 -중략 문갑우에 노이둔 단도를 집어들고 다시 올나가 박반위협으로 간음코져 하여도 듯지안커널 허다 못하여 이기씨의 흥복을 질너 행흥하여 버리고 그길노 돌쳐나와 즈최업시 다러나버렷더라<sup>18)</sup>

(3)은 『고의성』에서 무연고의 외간 남자가 대낮에 여염집 가정을 침입하여 아녀자를 겁탈하고 살해하는 장면이다. 단순히 범죄사건을 전달하는 (2)의 신문 기사와 달리 (3)의 경우 소설적 특성을 살려 겁탈과 살인이 일어나게 된 경위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대화를 통해 실감나게 묘사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사건 현장의 폭력성과 잔인성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개화기에 절도, 강간, 매음, 잡기 등 인민의 공공을 위해(危害)하고 풍속을 헤치는 악행을 엄금하기 위해 경찰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던 점<sup>19)</sup>과 여성 대상 범죄가 주로

18) 현공림, 『고의성』, 대창서원, 1912. 11-13쪽

강간의 문제와 연루되었고 가정의 비화나 겁탈 등의 문제로 신문에 여성들의 투고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했던 당대의 정황<sup>20)</sup>에 비추어 보면, 개화기 추리 소설에 그려진 강간이나 살인사건의 현장은 당대 사회에 급부상했던 범죄유형이 개화기 추리소설 내로 적극적으로 수용된 결과임을 짐작할 수 있다.<sup>21)</sup>

한편 개화기의 범죄는 주로 개인의 권리와 관련이 있다. 개화기의 범죄 유형은 가족이나 향곡 내의 집단적 갈등에서 벗어난 잔인하고 폭력적인 원한과 살인에 집중되는 송사소설의 범죄 유형과 대비된다.<sup>22)</sup> 개화기에는 인간이 전체 사회의 공동적인 것과 구분되는 개인의 사적 영역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싹트기 시작했고, 이와 더불어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때 개인의 권리는 주로 생명권과 재산권에 집중되었다.<sup>23)</sup>

(4) 협회에서 할 일 ..... 첫째는 정부에서 인민의 생명과 재산에 당한일은 어디까지든지 보호할 일 둘째는 무단히 사람을 잡거나 구류하지 못하며 셋째는 잡은 후에도 재판하여야 죄상이 현로하기 전에는 죄인으로 다스리지 못할 일 넷째는 잡힌후에 가령 이십사시에 법관에게로 넘겨서 재판을 청할일 다섯째는 누구든지 잡히면 그 당사자나 그 당자의 친척이나 친구가 즉시 법관에게 말하야 재판을 할일<sup>24)</sup>

이는 『독립신문』의 잡보란에 실린 글로 독립협회가 앞으로 사회를 위해 공

19) 장계택, 『警察之目的』, 『태극학보』4호, 1906. 11. 29-30쪽

20) 최현주, 『신소설의 범죄서사 연구』,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4. 25쪽

21) 탁발승이 아내자를 강간·살해하고 판관이 이를 해결하는 모티프는 『신단공안』의 1,2,3,5화에서도 나타난다. (『역주 신단공안』, 한기형, 정환국 공역, 창작과비평사, 2007)

22) 박성태, 『조선후기 송사소설의 유형과 전개양상 연구』,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4. 143-163쪽

23) 박주원, 『독립신문』과 근대적 ‘개인’. ‘사회’ 개념의 탄생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근대개몽기 지식 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소명출판, 2005. 145-148쪽

24) 『독립신문』, 잡보란, 1898. 8. 4

헌해야 할 중요한 임무로 ‘개인의 생명권과 재산권의 보호에 앞장서며, 죄가 성립될 경우에도 법적 절차를 밟아서 처리할 것’을 꼽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개인의 권리인 생명권과 재산권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며, 만약 다른 사람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법률에 따라 범죄자로 판명된다. 이처럼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중시하는 사상은 다름 아닌 개화기에 수입된 천부인 권설에 바탕을 둔 만민평등권에 해당한다. 인간은 누구나 생명, 재산, 자유권 등의 천부인권이 있기 때문에 만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만민 평등의 실천을 제도화하는 제도적 장치, 즉 공평주의, 공개주의, 증거주의, 적법절차주의, 인도주의 등에 따라 근대적 재판제도가 비로소 가능해졌다.<sup>25)</sup>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여 사회를 문란하게 만들고 질서와 인성을 보존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는 곧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아 마땅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개화기에 들어 급격하게 부상한 절도, 강간, 매음, 잡기 등의 범죄는 명백하게 타인의 재산권과 생명권을 침해한 근대적 범죄에 유형에 해당한다.

개화기 추리소설에서 다루어진 범죄의 동기와 범죄의 의미만을 기준으로 삼으면, 송사소설계와 정탐소설계의 범죄적 특성이 확연하게 구분된다. 즉 송사소설계의 범죄는 송사소설과 마찬가지로 가족이나 향곡 내의 원한과 갈등에 기반한 패륜적 범죄가 주를 이룬다. 따라서 송사소설계는 어떤 가문이나 향곡에서 범죄사건이 일어났으며,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에 관련된 범죄사건의 발생과정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반면, 정탐소설계의 범죄는 가정이나 향곡의 울타리를 넘어서 익명의 외부인에 의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근대적 범죄로 구성된다. 따라서 정탐소설계에서의 관심은 ‘누가’ 범행을 저질렀는지, 탐정이 어떻게 범행 사실을 밝혀내는지에 초점 맞추어져 있다.

송사소설계의 대표적인 작품에 해당하는 『구의산』은 송사소설 『김씨연행

www.kci.go.kr

25) 김민환, 『개화기 민족지의 사회사상』, 나남, 1988. 160-170쪽

록』의 주요 줄거리를 답습하면서 추리 기법과 추리적 요소를 보완한 작품으로, 범죄의 동기 역시 송사소설과 마찬가지로 가족 내의 갈등으로 집약되어 있다. 가해자인 이동집이 피해자 오복이를 살해한 동기는 자신의 친자식에게 서판서의 전재산을 물려주기 위한 계약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동집은 서판서와 결혼한 이후 오복이를 친자식보다 더 애뜻하게 돌보는 자애로운 계모로 주변사람들의 칭송을 한 몸에 받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서판서의 재산을 독식하려는 음모를 철저하게 은닉하기 위한 고도의 행동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듯 계모와 의붓자식 간에 재산권을 두고 일어나는 갈등과 범죄사건은 ‘가정내 갈등형’ 송사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근대적인 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한다. 한편 포악한 향곡의 수령에게 살해된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끔찍한 살인과 복수를 감행하는 『현미경』에서의 범죄 역시 ‘향곡내 갈등형’ 송사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던 전근대적인 범죄유형에 해당한다.

이처럼 송사소설계가 전근대적인 범죄 유형을 답습하는 반면, 정담소설계의 범죄 유형은 개인의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쌍옥적』에서 도시의 한 북판에서 일어나는 도난사건은 대표적인 근대적 범죄에 해당한다.

(5) 김주수가 인천항에서 비를내려 경인철로 막츠를 타고 남디문밖 덩거장애를 당도하야 여러 승식이 분々히 내려가는데 자기도 내려가랴고 것헤 노엇던 가방을 차지니 간곳이 읍는지라 황망히 일어나 이리더리 샅혀보다가 혹 랫찌타던 사람의 형장에 헛접혀 내려갓나흐고 물결갓치 허여져가는 각 사람의 짐을 아모리 뒤져보아도 자기의 형장은 간곳이 읍는지라<sup>26)</sup>

(5)에서와 같이 범죄의 유형은 유동 인구가 많은 대낮 도시의 한북판에서 익명의 도적들에 의해 거액이 든 돈 가방을 도난당한 절도사건에 해당한다. 범인은 피해자 김주사와 일면식도 없는 정체불명의 도적들이다. 도적들은 우

26) 이해조, 『쌍옥적』, 보급서관, 1911. 5쪽

연히 손에 들어온 편지를 보고 인구 이동이 많은 남대문밖 정거장에서 거액의 돈가방을 쥐도 새도 모르게 훔쳐내는 대단한 범죄를 감행했다. 절도는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타인의 재산권을 침범하는 범법행위이자 범죄행위이다.

고의성에서 아무런 연고가 없는 외간 남자에 의한 여염집 여자가 겁탈·살해당하는 범죄사건 역시, 개인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전형적인 근대적 범죄에 해당한다. 개화기에 들어 전대 사회에서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겁탈사건, 강간 미수 혹은 통간 등 여성의 정조를 노린 범죄가 급증했고 『대한매일신보』 등을 통해 여성 대상 범죄사건을 다룬 기사가 증가 추세를 보였다.<sup>27)</sup> 특히 『대한매일신보』에는 여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투고가 심심치 않게 등장했는데, 여성과 관련된 범죄의 경우 대부분 겁탈과 강간, 인신매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sup>28)</sup> 이런 점에서 『고의성』에서 피해자 이기씨가 일면식도 없는 익명의 남자에게 겁탈·살해당한 범죄사건은, 개화기에 빈번하게 일어났던 여성 대상 범죄 스캔들이 소설에 반영된 결과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마굴」은 재산을 목적으로 매부가 처남을 살해했다는 점에서 ‘가정 내 갈등형’의 송사소설과 유사하다. 그러나 범죄의 실제적인 동기가 가족 간의 원한이나 갈등에서 비롯된 살인이 아니라 애초부터 타인의 재산권을 노린 범죄라는 점에서, 그리고 계획적으로 외부인을 끌어들이 가족 관계를 맺고 이를 이용하여 지능적으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근대적 범죄유형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사건의 해결자가 군수라는 점에서 송사소설계와 유사성을 지나, 군수의 철저한 정탐과 탐색에 의해 범죄사건의 진말이 밝혀진다는 점에서 정탐소설계의 특성을 담보하고 있다.

27) 『대한매일신보』의 잡보란에는 청상과부가 겁탈을 당한 뒤 인신매매에 시달린다는 기사(1905. 9. 30)나 순검이 관내 여성을 겁탈했다는 기사(1907.7.20) 등 여성 대상 범죄가 많이 다루어졌다.

28) 『대한매일신보』의 잡보란에는 李室投書」이란 글(1906. 7. 20)과 같은 여성 투서가 눈에 많이 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탐소설계에 속하는 『쌍옥적』과 『고의성』, 『마굴』은 개인의 재산권이나 생명권을 노린 근대적 범죄 유형을 담고 있다. 반면 송사소설계 속하는 『구의산』과 현미경』은 가정이나 향곡과 같은 공동체 내에서의 갈등과 원한에 의한 패륜적 범죄를 주로 다루고 있는 특성을 보인다.

### 3. 근대적 ‘정탐’의 도입과 개명사회에 대한 인식

일반적으로 추리소설에서는 아무리 은밀하게 자행된 범죄사건일지라도 언제나 명민한 탐정에 의해 사건의 전모가 명백하게 밝혀지면서 서사가 마무리된다. 따라서 추리소설에서의 주인공은 범인이 아니라 범죄사건을 해결하는 탐정이다.

탐정은 19세기 서구 근대사회의 산물이다. 19세기 산업화된 서구 근대도시의 도처에서 각종 범죄가 만연해지자 경찰 조직과 사법제도가 재정비되고 범죄사건의 수사방식이 새롭게 강화되었다.<sup>29)</sup> 그러나 경찰 조직과 사법제도가 발달한다 해도 범죄사건이 가족이나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치부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르주아들은 경찰보다는 사립 탐정에게 사건 해결을 의뢰하게 마련이다. 경찰은 공공의 질서 유지와 인민의 위해(危害) 예방을 목표로 삼아 범죄를 엄격하게 다스리는 반면, 탐정은 수수께끼와 같은 범죄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만 몰두할 뿐 범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중간지대에 속하는 탐정의 활약상은, 경찰의 공권력이 미칠 수 없는 지점에서 더욱 돋보일 수밖에 없다.<sup>30)</sup> 서구 근대사회에서 등장한 탐정은 추리소설에 수용되어 과학에 대한 해

29) 이브 피테르, 『추리소설』, 김경역 역, 문학과지성사, 2000. 22쪽

30) 지크프리트·클라우어, 『探偵小説の哲學』, 福本義憲 譯, 法政大學出

박한 지식과 합리적인 추리에 바탕을 둔 정탐기술을 활용하여 범죄사건을 해결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기계’라는 별명을 지닌 독특한 인물로 그려진다.<sup>31)</sup>

그러나 개화기 추리소설에서는 직업적인 탐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쌍옥 적』에서는 정순금이라는 경찰이, 『고의성』에서는 어사가, 『마굴』에서는 군수가 범죄사건을 해결한다. 이들은 모두 근대적 경찰제도나 조선조의 사법제도 내에서 활동하는 공적 인물들이다. 송사소설계인 『구의산 과』 『현미경』에서는 피해자의 부인이나 후원자가 부분적으로 탐정의 역할을 담당하지만, 앞의 작품들에 비해 사건의 해결과정이 상당히 축소되어 있다. 이처럼 개화기 추리소설에서 직업적인 탐정이 아니라 탐정의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이유는, 개화기에 들어 서구의 경찰제도의 도입과 함께 근대적인 정탐기술이 동시에 소개되었던 사회적 배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즉 서구사회에서는 타락한 경찰제도에 반발하는 직업적인 탐정이 자리잡았고 경찰 뿐만 아니라 탐정 역시 다양한 정탐기술을 활용했던 반면, 개화기에는 정탐기술을 곧 경찰제도의 산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6) 警察者는 國家行政之要素오 保持社會之安寧者오 豫防人民公共之危害者니 基法은 屬于行政호며 行政法은 屬于法學總部而即公法之一部分也라 然故로 基能力이 有國家權力之作用호며 有命令強制之作用호며 以直接으로 有維持一般臣民之安寧호니 此三者는 行政警察에 相補而不可缺一者요 若缺一이면 不能基目的이리<sup>32)</sup>

(6)은 개화기에 근대적 경찰제도를 소개하는 글의 일부이다. 이 글에 따르면 경찰은 국가 행정의 구성요소로서 사회 질서의 유지와 인민의 안녕을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경찰의 목적은 ‘국가의 권력을 빌려 행정하는 작

版局, 2005. 99-105쪽

31) 김용언, 「군중 속의 개인 - 탐정, 범죄소설, 모더니티」, 연세대 대학원 비교문학 석사학위논문, 2007. 7. 34-57쪽

32) 장계택, 「警察之目的」, 『태극학보』4호, 1906. 11. 20쪽

용’, ‘사회 안녕을 지키는 작용’, ‘공공질서를 지켜 인민의 위해를 예방하는 작용’에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필자 장계택은 1872년(명치 5년)에 정립된 일본의 경찰제도가 서구 제국의 경찰제도와 다를 바 없이 “인민의 안녕과 공공질서 유지를 실행하여 지금과 같이 진보하였으니 우리도 이를 본받아 근대적 경찰제도를 하루 빨리 정립해야 한다”<sup>33)</sup>고 강조하였다.

(7) 경찰제도를 두는 근본 의도는 나라의 치안을 유지하는데 힘써 개명한 사회로 진보하는 것을 지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경찰은) 법제도의 질서를 파괴하거나 사회의 안녕을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몰아내며, 평온케 하려는 취지에 걸림이 되고 사회의 분위기를 손상시키는 자가 있으면 억제한다.<sup>34)</sup>

개화기 지식인들이 근대적 경찰제도의 도입을 역설했던 궁극적 지향점은, (7)에서와 같이 ‘개명한 사회로의 진보’에 있다. ‘개명한 사회로의 진보’를 주장하는 개화기 지식인들의 생각은 당시 조선이 문명화되고 계몽화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앞선 서구의 문명을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는 문명 개조의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새로운 문명과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생존·번영하기 위해서는 서구 근대의 제도와 법 등을 받아들여야 하고, 전통적인 자기 모습에 대한 반성과 아울러 서구 문명의 탐색을 통해 개명사회로 진보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sup>35)</sup> 서구의 경찰제도나 근대적 법적 제도를 수용하여 개명사회로 진보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던 개화기 지식인들의 생각은 개화기 추리소설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8) 데일 무서운 도적은 빅두더지에 총도업고 칼도업고 댕흔집 댕흔방에 적슈공 권으로 놓히안져서 빅성의 돈천돈만을 닝슈한스발로 드리마시는 토호질이라 그전

33) 장계택, 『警察之沿革』, 『태극학보』 제 5호, 1906. 10. 32쪽

34) 유길준, 『서유견문』, 허경진 역, 한양출판, 1995. 244쪽

35) 정용화, 『문명의 정치 사상 : 유길준과 근대 한국』, 문학과지성사, 2004. 25-29쪽



미기시디에는 그런 분네들이 세력업고 돈꾼이나 잇는스름을 기탄업시 잡아오고 꺼러다가 먹고십은티로 얼마든지 제육심을 한것 치우며 만일 소불여의하면 싱치살지를 제 임의로 하더니 사국이 한번 변천되미 문명의 풍조가 드러와서 정치와 법률이 점々 불아가니 그후는 그리함부로 펼쳐놓코 썩서먹지를 못하<sup>36)</sup>

(9) 지금 모양으로 경찰이 밝은 것<sup>37)</sup>이면 일변 시테를 검사한다 혐의자를 조사한다 괴어히 원범을 발각<sup>38)</sup>했스런마는 그새만 히도 암기하던 시테라 지상가의 일이라면 당자가 거조를 하기 전에는 감히 간섭을 못하는 중 서판서가 -중략 우두커니 서서 그 시테를 물그림히 들여다보다가<sup>37)</sup>

(8)은 『현미경』에서 김감역이 탐관오리 정승지에게 전재산을 빼앗기고 살해된 경위를 설명하는 대목의 일부분이다. 서술자는 탐관오리가 토호질을 일삼았던 치안부재의 시대를 ‘미개한 시대’로, 근대적인 정치제도와 법률제도가 도입되었던 시대를 ‘문명의 시대’로 보고 있다. 이런 시각은 (9)의 『구의산』에서 신혼 첫날밤에 머리 없는 시체로 발견된 정황을 그린 대목에도 나타난다. 서술자는 ‘당자가 신고하기 전에는 법관이 전혀 간섭하지 않았던 개화기 이전의 치안 부재의 상황을 ‘암매(闇昧)한 시대’로 진술하고 있다. 반면 개화기에는 살인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찰이 개입하여 시체를 검사하고 범인을 조사하여 밝혀낼 수 있는 제도가 갖추어져 있으므로 ‘경찰이 밝은’ 개명한 사회로 보고 있다.

물론 조선시대에도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고을의 수령이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법의학 사전과 수사 지침서에 해당하는 『무원록(無冤錄)』이나 재판 결과를 다룬 『심리록(審理錄)』에 의거하여 검사와 수사를 하였고, 형조나 감영에서 법률에 의해 형량을 결정한 뒤 형을 집행하는 과정을 거쳤다.<sup>38)</sup> 그러나

36) 김교제, 『현미경』, 동양서원, 1912. 11-12쪽

37) 이해조, 『구의산』, 신구서림, 1912. 58쪽

38) 이수광, 『조선을 뒤튼든 살인사건 16가지 : 과학수사와 법의학으로 본 조선시대 이야기』, 다산초당, 2005. 298-313쪽

이는 어디까지나 범죄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범인을 수색·체포하고 재판하는 사후처리의 차원에 국한된 것이다. 특히 (1)의 글에서 보았던 바대로 동학혁명과 갑오개혁을 전후한 시점에 범죄가 빈번해지고 사회 전체가 혼란의 도탄에 빠진 상황이 지속되자, 개화기의 지식인들은 이미 발생한 국민의 환난과 위해(危害)를 처리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사법경찰보다 사회 안녕을 헤치거나 법적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공공질서 유지와 국민의 안녕을 미리 예방하는 행정경찰을 도입·정착시키는데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sup>39)</sup>

(10) 現今時代 文明之階級이 極達極精호야 政治, 科學, 及諸種 哲學를 但舉一部分而表面視之면 雖小雖微나 其中所含之意義는 廣大巧調에 可促世界之進化者 - 卽現世 各國 最發達之警察探偵學이是也 - 중략 是以로 現今日本警察廳內에 特設巡查講習會호고 窮究偵探之技術 者 | 應以是也인저 中략 通常之人은 一視以別無可證之處나 偵探之術이 亦爲進達호야 或以醫理로 問問有解剖以察覺호며 或以催眠術로 有隱密中探知者호느니 是以로 欲學偵探之術이면 醫學及催眠術이 最高호다.<sup>40)</sup>

다른 한편 (10)의 글에서 보듯이 개화기 지식인들은 서구에서 정탐기술이 발달하게 된 원인을 근대적 경찰제도가 확립된 결과물로 보았다. 또한 현대 문명이 발달하고 여러 학문이 확대되어 세계의 진보를 촉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고로 발달한 학문이 ‘경찰의 정탐학’이라 소개하고 있다. 특히 살인과 범죄의 방법이 날이 갈수록 점점 교묘해지니 이에 대한 예방책과 대비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일본의 경시청 내에서 형사순사 강습회 열어 정탐기술을 궁구하듯이 우리의 경찰들도 서둘러 정탐기술을 익혀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아울러 정탐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법률, 과학, 의학, 심리학 등 최신의 학문과 매음

39) 장계택, 『警察之分類』, 『태극학보』 제 6호, 1906. 11. 34-36쪽

40) 장계택, 『警察偵探』, 『태극학보』 제7호, 1907. 2. 37-40쪽

부사회, 도적사회, 잡기사회 등을 알아야 하며 임기응변과 표리반복(表裏反覆), 조술교묘(術述巧妙) 등에도 능통할 것을 강조하였다.<sup>41)</sup> 이처럼 개화기에 서구의 근대적 정탐기술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면서 정탐은 ‘비밀스럽게 조사하다’라는 뜻에서 ‘범죄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현대의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탐색하는 행위’라는 의미로 전환된다.

개화기에 도입되었던 근대적 경찰제도와 정탐기술에 대한 소개는 개화기 추리소설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정탐소설계에서는 근대적 정탐기술을 활용하여 범죄사건을 해결하는 탐정의 서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서사의 대부분이 범죄사건의 발단과 진행과정에 치우쳐 있는 송사소설계에서도 부분적으로 정탐기술과 추리기법이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개화기 추리소설에서 미궁에 빠진 범죄사건이 탐정의 역할을 담당하는 명석한 인물에 의해 그 인과관계가 선명하게 파악되고 범인의 음모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에게 ‘합리적인 이성으로 파악되지 않은 영역이 있을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인간이 합리적 이성을 토대로 자기 귀책적인 미성년성으로부터 탈피하여 세상의 모든 일을 밝게 해명할 수 있다는 생각이 곧 계몽의 핵심이다.<sup>42)</sup> 이런 점에서 수수께끼적인 사건을 풀어나가는 탐정의 정탐활동 과정에서 논리적 추론을 통해 사물과 세계를 밝게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개화기 추리소설은, 계몽적인 효과를 제공하는 동시에 독자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문학이라 할 수 있다.

(11) 별순금이라 하는 직무는 덩탐을 신출귀몰 하게하여 범상한 사람은 뜻도 아니한 일을 썩어 알아내는 것이 데일 급무라 -중략- 유명한 정순금으로도 미양 도덕 현아를 잡으려면 혀가 턱사 갈나지도록 이를 쓰던터인고로 이 고침을 하는 것이라 정순금이 남디문 밖까지오며 심중에 단사이 작정하기를 몇날몇달이 되던지 썰러다 니면서 그 두사람의 쫓지는 것을 괴여히 알고 말나라 하였더니<sup>43)</sup>

41) 장계택, 『警察偵探-前續號』, 『태극학보』 제8호, 1907. 3. 48쪽

42) 황태연, 『계몽의 기획 : 근대 정치사상 연구』, 동국대학교출판부, 2004. 152-154쪽

『쌍옥적』은 탐정의 정탐활동이 상세하게 그려진 대표적인 정탐소설계이다. 정순금은 위의 글에서처럼 ‘범상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출귀몰한 정탐기술을 발휘하여 피의자를 끝까지 찾아내는 탐정의 역할을 담당한다. 정순금의 직책인 별순금(별순검 또는 별순포라고도 부름)은 주로 범인의 체포나 기타 정탐에 종사하는 오늘날의 사복형사에 해당하며,<sup>44)</sup> 탐정이면서 동시에 경찰이라는 이중성을 지닌다.

그런데 범인 수색과정에서 조력자로 활약하였던 고소사라는 인물의 살해사건을 계기로 정순금이 해직됨으로써 경찰과 탐정의 이중생활은 파탄에 이른다. 이후 정순금은 경찰들이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 범인의 행적을 좇아 금강산에 들어가 오직 탐정의 역할에만 매진한다. 이런 맥락에서 소설의 후반부에 범인의 행적을 따라 정탐활동에만 몰입하는 정순금의 활약상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중간지대에서 경찰보다 뛰어난 사건 해결능력으로 합법적인 경찰제도를 우롱하는 아이러니로 표상되는 서구 추리소설의 탐정<sup>45)</sup>과 흡사한 측면이 있다.

특히 ‘고소사’라는 독특한 인물과 정순금이라는 파행적 탐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소사는 ‘정탐을 귀신같이 하는 여인’으로 사설탐정에 해당하는 인물로, 소설의 초반에 잠깐 등장하여 정순금에게 범인에 관한 단서를 제공하고 곧바로 살해된다. 또한 경찰과 탐정의 이중생활을 했던 정순금의 파행적 정탐활동은 서구 추리소설에서의 직업적 탐정의 활약상과는 거리가 멀다. 작가 이해조가 ‘정탐소설’을 분명하게 인식했던 점으로 미루어보면, 고소사라는 사설탐정과 정순금의 파행적 탐정은 분명히 서구의 추리소설과 탐정이란 직업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개화기의 사회상황 사이에 놓인 커다란 간

43) 이해조, 『쌍옥적』, 보급서관, 1911. 434-435쪽

44) 양홍준, 『대한제국후기(1905-1910) 경찰제도 연구』, 고려대학교 사회과 박사학위논문, 2007. 14-15쪽

45) ジークフリート・クラカウアー, 『探偵小説の哲學』, 福本義憲 譯, 法政大學出版局, 2005. 99-105쪽

극에서, 취할 수밖에 없었던 소설적 타협점으로 읽혀진다.

(12) 어스역시 너가 갈너지도록 용여하여 탐지하나 알수업슴으로 -중략 너가 무슨 장수를 하여가며 탐지하는게 그져 단이는 것보더는 나호리라 하고 -중략 토인 하나히 동헌방으로 나오면서 하는말이 연상엽혜 노인 그 봉투인디 입쪽에는 만춘혜람(晩春惠覽)이라쓰고 뒤쪽에는 중앙익일 취하편부상(翠霞便付上)이라 썼스니 -중략 옛장수가 그리 약이한 것음듯고 올타 인제는 알엇다하고 속으로 방침을 을마 큼싱각하며 -중략 그러면 네가 고기를 들어 나를 쳐다보라 중이 쳐다본즉 어싱원이 거닐 한층 보더니 다시 고기를 숙이며 아모말도 업거날<sup>46)</sup>

고의성 의 어시는 공적 영역에 속하는 인물이 탐정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쌍옥적』과 유사하다. 그러나 어시는 경찰의 신분을 벗어나 자유롭게 정탐활동을 벌였던 정순금과 달리 (12)에서처럼 공적 신분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어시는 범인을 수색할 때에는 옛장수로 변장하여 정탐활동을 벌이지만, 살인범을 체포할 때에는 어사라는 공권력을 적극 활용한다. 어시는 변장을 통해 법관의 피의자 심문과정을 염탐하여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활용하여 전에 만났던 중이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있음을 추론해낸다. 이런 점에서 어사는 공적 영역에 속하는 인물이면서 동시에 과학적 추론과 정탐기술을 활용하여 범인을 추적하는 탐정의 역할을 담당하는 독특한 인물이다.

이에 비해 『마굴』은 군수의 판결에 의해 송사사건이 해결된다는 점에서 송사소설과 유사하다. 그러나 소설 전반이 주로 합리적 추론과 최첨단의 정탐기술을 동원한 군수의 정탐활동에 집중되어 있는 점에서 정탐소설계의 특성을 지닌다.

(13) 東面花川洞에서殺人이났다는 該洞人民의報告가入來하미 尹守가聞時로親히吏屬을 領率하고 該洞에 躬往하여 몬져屍體를檢査하여보니 軟弱한少年에게다 如何

46) 현공림, 『고의성』, 대창서원, 1912. 67-103쪽

殘忍호 強力을加壓호였던지 兩臂는挫折호고頸周에는紋痕이斑々호데咽喉에黑血이  
 充塞호야 悲慘호最後를成호 形狀이人호로호여금正視기難호니 -중략 尹守가吏屬을  
 嚴圍호야 洞民에게는些少의治擾기無케호고 檢屍를畢호後에<sup>47)</sup>

윤수는 ‘외국 사정에도 능통하고 사리에도 명탁한 명관’으로,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접하자 바로 정탐기술의 가장 기초 작업에 해당하는 검시에 착수한다. 그 결과 ‘양쪽 어깨가 꺾이고 머리에 남아 있는 교흔’으로부터 타살이라 추정하고, 신장손의 세모녀는 물론 이서방의 친가에 조력자 정탐을 급파하는 등 과학적 지식에 기초하여 범죄사건에 대한 탐문조사를 벌인다. 또한 윤수의 정탐활동은 송사소설에서처럼 관관의 직관이나 초경험적인 힘에 의존하지 않고, 철저하게 탐문과 논리적인 추론에 의해서만 전개된다.

한편 송사소설계에 해당하는 『구의산』과 『현미경』에서도 비록 서사의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탐정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에 의한 정탐활동이 그려진다. 이들의 정탐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탐소설계에 비해 매우 적기는 하지만, 이들의 정탐활동은 이미 범인으로 밝혀진 인물이 소설 속의 다른 인물들에게 범인임을 확인시켜주는 과정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이들의 정탐활동은 범인이 왜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밝혀지는지와 관련된 독자의 궁금증과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서사적 역할을 담당한다. 예를 들면 『구의산』에서는 피해자의 부인이 펼치는 정탐활동을 통해 이동집의 범행과정이 서판서를 비롯한 다른 인물들에게 확실하게 입증된다. 또한 『현미경』에서도 경부(警部)에 적을 둔 이협판의 정탐활동을 통해 정대신의 만행이 만천하에 밝혀진다. 그리하여 독자들은 이동집이 오복이를 죽인 이유가 무엇인지, 또 법관대신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정대신의 만행이 어떻게 증명되는지 등에 대해 호기심을 집중하면서 이들의 정탐활동을 지켜보게 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4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47) 백악거사, 「마굴」, 『태극학보』 제16호, 1907. 12. 45-46쪽

#### 4. 도서법(倒叙法)의 도입과 서사적 긴장의 정도

추리소설은 범죄의 결말을 먼저 제시하고 범죄의 원인과 동기를 거꾸로 탐색해가는 서사구조를 취한다. 범죄사건의 시작에서 결말로 이어지는 선조적인 서사구조를 취하는 리얼리즘소설과 달리 추리소설은 범죄사건의 인과관계가 도치된 서사구조, 즉 도서법(倒叙法)을 활용한다. 도서법은 ‘누구에 의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또는 ‘범죄사건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지연하는 효과를 지닌다.<sup>48)</sup>

또한 도서법에 의해 조성되는 독자들의 호기심과 서사적 긴장은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흐르는 전류처럼 추리 서사를 끝까지 밀고나가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즉 추리소설의 서두에서 수수께끼와도 같은 범죄사건을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호기심이 작동되기 시작하고, 마치 양극의 전기처럼 범죄사건을 해결해나가는 탐정을 따라 조각난 정보가 하나씩 밝혀지는 방식으로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러면 독자는 마치 양극의 전류에 반응하는 음극처럼 탐정이 범죄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조각난 정보를 활용하여 마치 퍼즐을 맞추어가듯이 범죄사건의 전말을 능동적으로 추리한다. 동시에 새로운 정보를 발견할 때마다 놀라움과 공포를 느끼며 이후에 전개될 서사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소설을 끝까지 읽어나간다.<sup>49)</sup> 따라서 독자가 추리소설을 읽는 독서과정은 범죄에 대한 정보와 사건 해결 사이에 가로놓인 논리적·시간적 갭을 밀접화시킴으로써 발생하는 탐색의 긴장과 퇴행에 의한 서사적 긴장감의 연속적 과정이다.<sup>50)</sup>

이처럼 추리소설에서 탐정과 독자는 숨겨진 정보로부터 범죄사건의 전말을

48) Lennard J. Davis, *Resisting Novels: Ideology and Fiction*, Methuen : New York & London, 1987. pp.212-213

49) 토마 나르스작, 『추리소설의 논리』, 김중현 역, 예림기획, 2003. 245-251쪽

50) 이재선, 『한국문학주제론』,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1. 105쪽

추론해내는 ‘거꾸로 추론하기’의 태도를 취한다. 이 거꾸로 추론하기에서는 범죄의 결과를 바탕으로 범죄의 원인을 추적하는 이른바 가추법(aduction)이 활용된다. 가추법은 결과를 발생시킨 알려지지 않은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나름대로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을 일반적인 규칙으로 확인시켜줄만한 사실들을 발견하여 범죄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짜맞추는 추론 방식이다.<sup>51)</sup>

그러나 추리소설의 이러한 특성도 약간의 편차를 보인다. 미스터리적 요소가 강한 추리소설일수록 텍스트의 표면에는 탐색 서사만이 존재하고 범죄 서사는 텍스트 이면에 감추어져 있다. 탐정은 범죄의 서사에 관련된 감추어진 정보를 찾아 퍼즐을 맞추어가듯 범죄의 결과로부터 원인을 추적해나감으로써 범죄사건의 전말을 밝혀낸다.<sup>52)</sup> 반면 범죄소설적 요소가 강한 추리소설에서는 범죄의 서사와 탐색의 서사가 엄격하게 분리되지 않은 유연한 구조를 지닌다. 이 유형의 추리소설에서 서사적 긴장감을 유지하는 요인은 범죄의 결말은 무엇인가, 어떤 희생을 치르는가, 최종의 승자는 누구인가 등에 대한 정보와 관련이 있다.<sup>53)</sup> 개화기 추리소설 역시 독자의 호기심과 서사적 긴장감을 유발하기 위해 원인과 결과를 순차적으로 배열하는 선조적인 구조를 배반한다. 그러나 도서법의 활용 정도, 범죄의 서사와 탐색의 서사가 존재하는 방식, 가추법을 활용하는 방식과 서사적 긴장감의 정도 면에서 상당한 편차를 보인다.

대표적 정탐소설계인 『쌍옥적』은 도서법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소설의 서두에 거금이 든 돈가방을 남대문밖 정거장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도난당하는 수수께끼와 같은 절도사건이 제시된다. 이는 독자들의 호기심을 끝만한 범죄사건임에 틀림없지만, 이에 대해 알려진 정보는 범인들의 인상(키가 구척이고 뒤통지가 세 뺨 정도)과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위(음력 정월 열

51) 움베르토 에코 외, 『논리와 추리의 기호학』, 김주환·한은경 역, 인간사랑, 1994. 8-12쪽

52) T. 토도로프, 『산문의 시학』, 신동욱 역, 문예출판사, 1992. 50-53쪽

53) 이브 피테르, 『추리소설』, 김경역 역, 문학과지성사, 2000. 107-110쪽



일해날 이만오천원을 가져가려는 편지를 우연히 손에 넣게 됨에 관한 것뿐이다. 익명의 도적에 의한 도난사건의 동기가 ‘돈’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으므로, 탐색의 서사는 범죄의 동기나 범인의 정체를 밝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탐정이 범인을 어떻게 잡는가’에 초점 맞추어져 있다.

정순금 일행이 벌이는 탐색의 서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전반부는 서울의 한복판에서 범인을 추적하는 과정으로, 조력자였던 고소사가 살해되는 사건을 계기로 정순금 일행이 투옥됨으로써 실패로 끝난다. 후반부는 범인이 금강산에 잠입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난 직후 별순금직을 사퇴하고 범인을 쫓는 정탐활동에 치중되어 있다. 따라서 독자들은 정순금 일행이 유동 인구가 많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도시의 한복판과 넓디넓은 금강산에서 베일에 가린 범인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지에 대해 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의 서사를 따라 읽게 된다.

(14) 그밤에 삼보중을보고 솔갑이가 병알이 차가지고 기듯흔자는 별사람이 아니오 다년강도로 유명한 쌍옥적이라 이놈의 형제가 어려서부터 단소불기를 편기하야 간곳마다 단소를 부는고로 남들이 별호하기를 쌍옥적이라 하였는디 -중략- 서울시 골 허다흔 별순금에 한아도 두려울 사람이 읊스되 항상마음에 쓰리끼는 기찰을 유명하게하는 화기동 정순금뿐이러라<sup>54)</sup>

그런데 범인에 관한 정보(키가 크고, 2인조이며, 단소 병창을 즐긴다)는 서술자와 독지만 알 뿐 정작 탐정인 정순금은 알지 못한다. 범인에 관련된 정보가 탐정의 추론을 통해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14)에서처럼 서술자가 탐정이 인지하는 수준보다 앞질러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반 다인(S. S. Van Dine)이 제시한 추리소설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규칙, 즉 ‘탐정과 독자가 범죄사건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동등하게 공

www.kci.go.kr

54) 이해조, 『쌍옥적』, 보급서관, 1911. 98-99쪽

유해야 한다'는 규칙<sup>55)</sup>을 위반한 것이다. 바로 이런 점으로 인해 『쌍옥적』은 서두에서 도시 한복판에서 일어난 거액의 도난사건이라는 충격적인 범죄사건을 제시하여 범인을 찾는 탐정의 활약상에 대한 독자들의 기대감과 호기심을 한껏 촉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후반부로 갈수록 탐정이 범인을 주체적으로 추적하지 못하고 범인의 뒤를 버겁게 밟아가는 형국이 되고 만다. 범인을 추적하기는 탐색 서사의 전류가 약해질수록 이에 자극을 받는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전류 역시 약해지기 때문에, 결말로 갈수록 서사적 긴장감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15) 悽慘愁慘絕慘 悲劇은 起 訶였다! 地方은 黃海道長連郡東面花川洞에서. 光武는 五年春三月이라 -중략- 其所聞이 洞內에 傳播 訶자 人々마다 驚顔이오 處々마다 疑問이라 此處彼處에서, 이런말 저런말 疑鬼가 百出 訶니, 眞相은 到底이 갈길이 萬無 訶도다. -중략- 細繩 訶해 生命을 밧고, 朝露 訶에 來往 訶는, 尼可憐 訶 조고마 訶犧牲야! 花發多風雨 訶기애 芳蕾를 自委 訶었나냐 惡魔의 宿怨이 잇섯나냐 兇惡 訶戀敵의 毒手를 밧았나냐 死口에 말이 업서 秘密이 永默 訶니, 楊柳枝야 情도 업다. 人의 三代 獨子를!<sup>56)</sup>

「마굴」은 서두에 충격적인 살인사건을 제시할 뿐 아니라, ‘수수께끼와 같은 범죄사건의 제시 → 논리적 추론과정 → 범죄사건의 해결’이라는 미스터리 추리소설의 기본적인 서사구조에 충실하다. 아울러 전체 6장으로 분절된 각 장마다 소재목이 제시되고, 각 장마다 서사의 진행 속도를 조절하는 장회소설(章回小說)적 특성으로 인해 서사적 긴장감이 더욱 배가된다. (15)에서처럼 작은 마을에 어린 신랑이 죽은 시체로 발견된 사건은 마을 전체를 충격에 휩싸이게 만들어 놓는다. 곧바로 피해자의 신원이 ‘신장손의 처남’이라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탐색 서사의 핵심은 죽음의 원인과 동기가 무엇인가로 전

55) 토마스 나르스작, 『추리소설의 논리』, 김중현 역, 예림기획, 2003, 108쪽

56) 백악거사, 「마굴」, 『태극학보』 제16호, 1907. 12. 43-45쪽

환된다. 서두에서 서술자는 죽음의 원인을 두고 자살인지, 원한이나 연적과 관련된 것인지 강한 의문이 제기한다.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 비밀은 영원히 침묵한다’라는 진술을 통해 죽음의 원인에 대한 독자들의 강한 호기심을 더욱 증폭시킨다.

살인사건의 원인과 동기를 밝히는 탐색의 서시는 탐정에 해당하는 윤수가 등장하면서 시작된다. 그러나 『쌍옥적』과 달리 서술자가 추리소설의 규칙에 충실하여 철저하게 윤수의 인지를 넘어서지 않는 정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윤수를 앞질러 독자에게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독자들은 윤수가 정탐활동을 통해 밝혀내는 정보에 촉각을 세우며 범인이 누구인지, 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호기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간다. 소설의 서두에서 가족 간의 갈등에 의한 ‘어린 신랑 살해사건’처럼 보였던 범죄사건이 윤수의 정탐에 따라 돈을 노리고 신장손의 모자녀가 어린 신랑을 살해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이처럼 탐정이 베일에 가려진 범죄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단서를 스스로 발견하고 발견한 단서를 토대로 범죄사건의 전말을 밝혀내기 때문에, 윤수에 의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는 결말에 가서야 독자의 호기심도 비로소 완전히 충족되고 이로써 서사적 긴장감이 극대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마굴」이 정탐소설계의 서사적 특성을 충분히 갖추었고 『쌍옥적』보다 1년 앞선 1907년에 발표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비록 단편소설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마굴 이야말로 명실상부한 정탐소설의 효시로서 손색이 없다.

한편 『고의성』에서도 서두에 이침봉의 머느리가 탁발승에 의해 강간·살해되는 충격적인 장면을 먼저 제시한 점과 범인을 정탐하는 탐색 서사가 우세하다는 점에서 정탐소설계의 특성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직후 탁발승과 여사가 만나는 대목에서 범인에 관한 정보가 독자에게 이미 노출되었고, 강간·살해사건의 특성상 범죄의 동기가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범죄사건의 전말에 관련된 독자의 호기심이 현저하게 반감된다. 이후 범인을 추

적하는 과정에서도 엇장수로 변장한 어사가 관청에서 이참봉이나 아씨의 하인이었던 복실 등을 심문하는 광경을 엿듣고 정보를 수집하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탐정의 치밀한 정탐활동을 통해 사건의 진말이 밝혀지기를 기대했던 독자들의 호기심은 극도로 약화된다.

서두에서 범인과 범죄의 동기가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독자들의 관심은 어사가 어떤 방식으로 범인을 잡을 것인지로 전환된다. 하지만 이 역시 어사가 탁발승과 만나기로 약속했던 주막에서 암행어사가 출두하여 강제적으로 자백하게 만드는 방식을 택했다는 점에서, 탐정과 범인 사이에 쫓고 쫓기는 지략적인 탐색의 게임을 기대했던 독자들의 호기심과 서사적 긴장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하여 『고의성』은 전체적으로 탐정이 범죄사건을 해결하는 탐색의 서사가 우세한 점에서 정탐소설계의 특성을 지니지만, 범죄사건의 진말을 파헤치는 탐정의 예리한 추론을 통해 서사적 긴장감을 유발시키는데 대한 자의식이 부족했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송사소설계는 ‘범죄 발생의 상황적 요인 → 범죄의 발생 → 송사 과정 → 해결(판결)’이라는 네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범죄가 발생하게 된 상황적 요인을 먼저 보여줌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드러나고 이들의 관계를 통해 구체적인 갈등 상황 속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과정이 제시된다. 따라서 송사소설계에서는 탐색의 서사가 현저히 약화되고 범죄의 서사가 우세한 특성을 보인다. 하지만 송사소설계 역시 부분적이거나 도서법을 활용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범인이 누구인가,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가 등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여 서사적 긴장감을 유지하는 효과를 노린다.

『구의산』에서도 범죄의 서사가 텍스트의 표면에 전면화되지만, 오복이의 살해과정이나 범인이 밝혀지는 과정 등 주요 대목에서 범죄의 결과를 먼저 보여주거나 정확한 정보를 차단하고 앞으로 무엇인가 중대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암시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도서법을 활용한다. 그리하여 독자로 하여금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끔찍한 범

행이 누구에 의해 왜 자행되었는가 등에 대해 강한 호기심을 갖게 만든다. 독자들은 이동집이 오복이의 혼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 모든 하인들을 혼례식이 거행된 신부집으로 보내거나 집에 돌아가 쉬도록 중용한 점, 칠성에게 ‘장가를 보내주고 집을 주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무엇인가를 간청한 점 등으로 미루어 짐작하여 이동집이 범인일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을 뿐이다. 더욱이 오복이에게 지극히 자애로웠던 이동집의 과거 행적과 결혼 첫날밤 신랑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침착한 반응을 보이는 오복이의 처 김애중의 태도를 비교해보면, 진짜 살인범이 누구인지 전혀 추측할 수가 없다. 게다가 선불리 인물에 대해 도덕적 평가를 내리지 않는 서술자의 태도 역시 독자들로 하여금 진짜 범인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 나중에 김애중이 시집 근처에 몰래 잠입하여 범인을 추적하겠다고 나서는 장면이 이르러서야, 비로소 독자들은 이동집이 범인일 가능성을 확신하게 될 뿐이다.

김애중의 정탐활동은 여러 가지 일어날 법한 가능성을 토대로 일련의 범칙을 만들고 그에 따라 범죄의 결과를 추론해내는 기추법을 충실하게 이행한다.<sup>57)</sup> 즉 까치가 매일 고목나무에서 우는 사실로부터 고목나무 아래 매장된 오복이의 시체를 발견하고, 결혼식날 이동집과 칠성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칠성이 청부살해자임을 추론해내어 칠성모로 하여금 칠성의 행적을 실토하게 만든다. 이처럼 김애중의 정탐활동을 통해 이동집의 지략적이고 끈찍한 범죄 행각이 밝혀지고 난 후에 독자들은 비로소 이동집의 이중적 행각에 놀라움 금치 못하게 된다.

(16) 스고무친하고 입헤 쓸죽식 한아업는 신세가 외로운 싱각이나서 덕아들에게 나 정을드려 몸의지를 튼々히히라하야 오복이를 남의류업시 공드려 기르더니 천만뜻뵈게 쏘복이를 나은후로 곱々궁리를하야본즉 오복이곳업스면 대감성미에 즈식

57) 움베르토 에코 외, 『논리와 추리의 기호학』, 김주환·한은경 역, 인간사랑, 1994, 299-301쪽

을두고 양자는 허실리만무하고 쏘복이가 죽연 세간차치를 허려십어 그거조를 허앗 습니다<sup>58)</sup>

그러나 이동집이 범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난 이후에도 살해동기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은 여전히 남는다. 즉 그것은 오복이를 친자식보다 더 애했던 이동집이 오복이를 그토록 끔찍하게 살해한 이유에 강한 호기심이다. 하지만 살해동기에 대한 정보가 철저히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고 (16)과 같이 법관의 심문에 의해 서판서의 재산을 독차지하려 살해했다는 이동집의 실토 장면에서 이르러서야 살해동기에 대한 의문이 해소될 수 있다. 독자들은 이동집의 실체가 드러나는 서사적 반전을 접하고 나서 비로소 그 동안에 제시되었던 이동집에 관한 정보가 잘못된 오보라는 점을 깨닫고 충격과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된다. 이처럼 『구의산』의 전반부에서는 부분적으로 도서법을 활용하여 독자들의 호기심을 지속적으로 촉발함으로써 서사적 긴장감을 극대화하는 특성을 보인다.

반면 효손이가 서사의 중심이 되는 후반부로 갈수록 서사적 인과관계가 심하게 어그러짐에 따라 서사적 긴장감도 현격하게 떨어진다. 집 나간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원수인 칠성이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서는 효손이를 보며 독자들은 과연 어린 아이에 불과한 효손이가 드넓은 세상에서 어떻게 할아버지를 찾을 것인지, 얼굴조차 모르는 칠성이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갖게 된다. 그러나 초경험적인 계시에 따라 할아버지가 머물고 있는 팔영산으로 찾아가는 대목이나 그 동안 죽은 것으로 알려진 오복이가 칠성이와 함께 오랫동안의 외국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우연히 효손과 만나는 대목에서, 지나치게 작위성이 개입됨에 따라 서사적 인과관계가 어그러지는 한계를 드러낸다. 결말에 가서 범죄사건의 중핵이었던 ‘머리 없는 시체’의 주인공이 오복이가 아남이 밝혀짐에 따라, 독자들은 그 동안 자신들이 접한 정보가 잘못

58) 이해조, 『구의산』 하권, 신구서림, 1912. 14-15쪽

된 정보임을 깨닫고 어그러진 서사적 인과관계를 거꾸로 꿰맞추어 보면서 당혹감을 금치 못하게 된다.

한편 『현미경』 역시 ‘송사사건의 발생 → 사건의 전개 → 해결(판결)’이라는 송사소설의 서사구조에 정대신의 탐색 과정이 가미된 송사소설계의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현미경』은 송사소설계 중에서 독보적으로 역전적 도서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소설의 서두는 충청도 보은의 군수 정승지가 술에 취하여 15,6세의 소복을 입은 여자아이에게 끔찍하게 살해당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보은 근방에서 ‘털끝도 못 건드리는 인호랑이’로 정평이 나있는 정승지가 겨우 15,6세의 여자아이에게 살해된 사건은 독자의 강한 호기심을 유도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바로 이어 정승지가 살해당한 이유와 살해자의 정체가 서술자의 입을 통해 낱낱이 드러남에 따라 살인사건에 관련된 독자의 호기심은 모두 해소된다. 즉 소복을 입은 아이는 김감역의 딸 빙주이며, 김감역이 정승지의 무리한 수탈에 부응하지 않아 억울하게 죽었기에 그의 딸 빙주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정승지를 살해했으며, 정승지가 법관대신이었던 정대신과 함께 모략하여 김감역의 재산을 강탈한 사실 등에 대한 모든 정보가 제공된다.

서두에 제시된 범죄사건의 원인과 동기가 밝혀지고 난 후 서사의 초점은 어린 빙주가 정대신을 대상으로 펼치는 신산스러운 복수담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추리적 요소는 현저히 약화되고, 특히 정대신의 권력 남용에 대해 도덕적 평가를 가하고 빙주와 김감역에 대해 지나치게 동정적 시선을 지닌 서술자의 태도로 인해 빙주가 벌이는 복수의 서사에 대한 긴장감이 약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대신이 빙주를 잡아들이기 위해 관찰부 순검들을 풀어 탐색활동을 벌이고 빙주가 이들의 감시망을 피해 도주하는 대목에서 쫓고 쫓기는 추리기법이 활용되고, 빙주의 후원자인 이협관이 정대신의 죄목을 밝히는 대목에서 정대신과 이협관이 증거 인멸과 확보를 두고 옥신각신 머리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추리기법이 활용된다. 바로 이런 점으로 인해 『현미경』은

추리와 탐정적 구조를 지니면서 동시에 송사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주제를 지니는 독특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sup>59)</sup>

그러나 서사의 후반부에 이르러 그동안 죽은 것으로 알려진 빙주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살아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또 정대신에 의해 처형된 인물이 빙주가 아니라 빙주와 닮은 빙심이며, 빙심은 다름 아닌 빙주와 어릴 적에 헤어져 자매로 밝혀지는 등 지나치게 작위적인 결말로 치닫는 한계를 드러낸다. 이러한 작위성으로 말미암아 서사적 인과관계가 심하게 어그러지고 아울러 독자의 호기심과 기대감 역시 반감되는 역효과를 초래한다. 이를 정대신의 권력 남용과 횡포에 의한 부당한 판결을 무효화하고 선량한 백성들의 승리로 마감하려는 작가의 의도로 풀이할 수 있지만<sup>60)</sup> 바로 이런 점이 송사소설계로서의 완성도가 떨어지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화기 추리소설은 송사소설계와 정탐소설계가 충돌하고 접합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적 추리소설로 정립해나가는 기원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 추리소설의 기원에 대한 연구는 서구의 추리소설을 직수입한 것으로 보는 이식론이나 모방론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한국 추리소설의 효시로 알려진 이해조의 『쌍옥적』에 주목하여 장르적 특성을 밝히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개화기 추리소설을 서구의 추리소설이 일방적으로 이식된 문학적 결과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59) 이현홍, 『한국 송사소설 연구』, 삼지원, 1997. 37쪽

60) 최원식 『한국 계몽주의 문학사론』, 소명출판, 2002. 124-133쪽은 이런 점에 주목하여 『현미경』을 갑오농민전쟁의 후일담을 다룬 리얼리즘소설로 본다.



본고는 이러한 단일한 시각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의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먼저 개화기 추리소설은 개화기의 복잡다단한 사회문화적 상황 속에서 형성된 독특한 문학 현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추리소설의 개념을 탐정소설이나 미스터리소설을 지칭하는 협의의 추리소설에 국한하지 않고 ‘살인과 같이 법적으로 비난받을만한 중대한 범죄를 추리기법으로 다룬 서사물의 총칭’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나아가 본고는 개화기 추리소설이 조선조의 송사소설에 뿌리를 두고 있는 송사소설계와 그 이전까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정탐소설계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주목하여, 개화기 추리소설이 출현하게 된 사회적 의미망과 관련시켜 그 서사적 특질과 존재 양상을 비교·분석하였다.

우선 2장에서는 추리소설의 발생지가 범죄가 일상화되고 신문을 통해 범죄 스캔들이 공론화되었던 근대사회라는 점에 입각하여 개화기 추리소설의 발생지에 해당하는 개화기의 사회상황과 개화기 추리소설의 상관성을 비교해보았다. 그리하여 정탐소설계인 『쌍옥적』과 『고의성』에서는 타인의 재산권이나 생명권을 노린 근대적 범죄 유형이 주로 다루어진 반면, 송사소설계인 『구의산』과 『현미경』에서는 가정이나 향곡 등 공동체 내에서의 갈등과 원한에 의한 패륜적인 범죄가 다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비해 『마굴』은 표면상 가정 내 갈등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송사소설계와 유사하나, 실제적으로는 재산을 노린 지략적인 근대적 범죄라는 점에서 정탐소설계의 특성을 지닌다.

3장에서는 개화기 추리소설에 등장하는 탐정의 역할과 정탐의 의미를 살펴 보았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중간지대에 속하는 직업적인 탐정이 등장하는 서구의 추리소설과 달리, 개화기 추리소설에서는 직업적인 탐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탐소설계에서 탐정은 경찰, 어사, 군수 등 모두 공적 영역에 속하는 인물인 반면, 송사소설계에서는 등장인물 중의 한 사람이 일시적으로 탐정의 역할을 대신하여 범죄사건을 해결하는 데 부분적으로 도움을 주는 데 그

치고 만다. 이처럼 개화기 추리소설에서 직업적인 탐정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서구의 경찰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정탐기술을 함께 소개했던 개화기의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서구의 정탐기술이 소개되면서 ‘정탐’의 의미도 ‘범죄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현대적인 학문에 기초하여 과학적으로 탐색하는 행위’라는 의미로 전환되었다.

한편, 4장에서는 개화기 추리소설에 나타난 도서법의 활용 정도, 범죄 서사와 탐색 서사의 존재 방식, 기추법의 활용과 서사적 긴장감의 정도 등을 비교하였다. 정탐소설계와 송사소설계의 두 유형 모두 인과관계의 도치를 활용하여 독자들의 호기심을 촉발시키는 서사 전략을 추구한다. 그러나 수수께끼적 요소가 강한 정탐소설계의 『쌍옥적』과 『마굴』에서는 탐정에 의한 탐색의 서사가 우세하기 때문에 도서법의 효과도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소설의 서두에서 범죄사건의 결과를 먼저 제시하고, 탐정이 조각난 정보를 찾아 퍼즐을 맞추어가듯이 기추법을 동원하여 범죄사건의 동기와 원인을 밝혀내는 정탐활동은 보여준다. 따라서 독자들이 범죄사건의 전말을 파헤치는 탐정의 탐색과정에 대해 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서사를 끝까지 읽어내도록 유도하는 서사적 긴장감도 높은 편이다. 반면 탐색의 서사가 약화되고 범죄소설적 요소가 강한 송사소설계에서는 범죄사건의 인과관계가 부분적으로 도치되는 서사구조를 취한다. 따라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정보의 성격이 서두에서 제기된 범죄사건의 원인과 동기를 추적하는 탐색과 관련되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또 다른 범죄사건에 연루된 정보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결말에 이르기까지 서사적 긴장감이 극대화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이처럼 고소설과 근대소설의 경계 지점에 위치한 개화기 추리소설의 존재 양상과 서사적 특질을 밝히는 노력은, 근대문학사의 결락으로 남아있는 부분을 새롭게 발견하는 작업으로서 한국문학의 외연을 넓히는 데 기여한다. 한편 중국의 공안소설을 변안한 『신단공안』이나 서구의 추리소설을 변안 또는 번역한 『금지환』, 『도리원』, 『누구의 죄』 등이 출간되었고 모험과 추리를 다룬

영화가 수입되었던 개화기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이에 대한 조명이 함께 이루어질 때 개화기 추리소설의 형성과정을 둘러싼 총체적 지형을 온전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면상의 이유로 다음의 과제로 넘기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자료

『대한매일신보』, 『독립신문』, 『태극학보』

김교제, 『현미경』, 동양서원, 1912.

백악춘사, 『마굴』, 『태극학보』 제16호, 1907. 12.

이해조, 『쌍옥적』, 보급서관, 1911.

이해조, 『구의산』, 신구서림, 1912.

현공렬, 『고의성』, 대창서원, 1912.

### 2. 논문 및 단행본

김용언, 군중 속의 개인·탐정, 범죄소설, 모더니티, 연세대 대학원 비교문학 석사학위 논문, 2007

박은숙, 개항기(1796-1894) 포도청의 운영과 한성부민의 동태, 『서울학 연구』 제5집, 1995. 6. 143-187쪽

김효진, 근대 중국 탐정소설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박성태, 조선후기 송사소설의 유형과 전개양상 연구,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4

양홍준, 대한제국후기(1905-1910) 경찰제도 연구, 고려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이동원, 한국 추리소설의 기원<등탐소설 쌍옥적>의 근대성에 대한 고찰, 『현대문학의 연구』 제 22집, 2004. 2. 167-194쪽

임 화, 『개설 신문학사』, 『조선일보』, 1939. 9

최현주, 『신소설의 범죄서사 연구』,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4

김민환, 『개화기 민족지의 사회사상』, 나남, 1988

대중문학연구회, 『추리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1997

대중문학연구회, 『역주 신단공안』, 한기형, 정환국 공역, 창비, 2007

유길준, 『서유견문』, 허경진 역, 한양출판, 1995

이수광, 『조선을 뒤흔든 살인사건 16가지 : 과학수사와 법의학으로 본 조선시대 이야기』

기』, 다산초당, 2005

이재선, 『한국문학주제론』, 서강대학교출판부, 1991

이현홍, 『한국 송사소설 연구』, 삼지원, 1997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근대계몽기 지식 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소명출판, 2005

정용화, 『문명의 정치 사상 : 유길준과 근대 한국』, 문학과지성사, 2004

최재천 외, 『살인의 진화심리학 : 조선후기의 가족 살해와 배우자 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최원식, 『한국 근대소설사론』, 창작과비평사, 1986

황태연, 『계몽의 기획 : 근대 정치사상 연구』, 동국대학교출판부, 2004

토마스 나르스작, 『추리소설의 논리』, 김중현 역, 예림기획, 2003

에르네스트 만델, 『범죄소설의 사회사』, 이동연 역, 이후, 2001

움베르토 에코 외, 『논리와 추리의 기호학』, 김주환·한은경 역, 인간사랑, 1994

이브 뢰테르, 『추리소설』, 김경역 역, 문학과지성사, 2000

T. 토도로프, 『산문의 시학』, 신동욱 역, 문예출판사, 1992

Lennard J. Davis, *Resisting Novels: Ideology and Fiction*, Methuen : New York & London, 1987

中島河太郎, 『日本推理小説史 第一巻』, 桃源社, 1964

九鬼紫郎의 『探偵小説百科』, 金園社, 1979

ジークフリート·クラカウアー, 『探偵小説の 哲學』, 福本義憲 譯, 法政大學出版局, 2005

##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n tales of ratiocination of Lawsuit Novel Style and Detective Novel Style

Lee, Jung-Oak

This study started from a question on the view that Lee Hae jo's *Ssangokjeok* is the beginning of Korean tales of ratiocination and tales of ratiocination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are merely the results of one sided import from the West. Furthermore, taking note of the fact that tales of ratiocination in the enlightenment period are divided into two styles (lawsuit novel style rooted into lawsuit novels in the Chosun Dynasty and detective novel style influenced by Western mysteries), this study mad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ir narrative characteristic and existential pattern in connection to the social semantic network that caused the appearance of tales of ratiocination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While detective novel style tales of ratiocination deal with modern crimes seeking others' property or life, lawsuit novel style ones describe immoral crimes involving conflicts and grudges within a community such as family and town. Furthermore, different from Western ones, Korean tales of ratiocination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do not have a professional detective. Detectives in detective novel style tales of ratiocination are public figures such as policeman, royal emissary, and governor, but in lawsuit novel style tales of ratiocination one of characters in the mystery plays the role of a detective temporarily and solves the crime. In addition, both detective novel style and lawsuit novel style tales of ratiocination use inversion, which inverts the order of

the cause and the result, as a narration strategy stimulating the reader's curiosity. In detective novel style tales of ratiocination, in which the narration of search is dominant, the motive and cause of crimes are uncovered through abduction as the detective collects fragmented pieces of information like a puzzle game. Accordingly, the reader is induced to read the narration to the end with strong curiosity about the detective's investigation that digs up the whole story of a crime. On the contrary, lawsuit novel style tales of ratiocination, which are close to crime stories, take the narrative structure that inverts the causal relation of a criminal case. As a result, the characteristic of information stimulating the reader's curiosity varies among novels, and narrative tension is also relatively low. (key words: tale of ratiocination, detective novel style tale of ratiocination, lawsuit novel style tale of ratiocination, lawsuit novel, investigation, detection, narration of search, narration of crime, inversion, abduction, narrative tension)

▮ 위 논문은 2009년 4월 28일 투고되었고, 심사를 거쳐 5월 25일 게재가 확정되었음.